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사순 제4주일



탕자 아들을 기다리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오늘의 복음은 루카 복음 15장입니다.

돌아온 탕자 아들의 비유는 소외된 이들의 복음이라고 별칭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사순 1주일의 복음은 광야에서 유혹을 겪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저는 25년 전 이 노래를 듣고, 제가 부임한 본당 첫째 사순 1주일 사순절 주제곡이라는 이름으로 강론 시간에 신자들과 같이 들으면서 묵상합니다.

하덕규 곡 (조성모 노래가 더 친숙함) ‘가시나무’란 노래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쉼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유혹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일 것 같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는 죽음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유혹은 외부에서, 세상에서 악마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은 탕자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인간의 3대 욕망은 물질(재물), 육욕, 권세(명예)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지요.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은 나는 세상과 악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탕자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이십니다.

사순 시기는 회개의 시기이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를 깨닫는 시기입니다.

소개해드린 사순절 주제곡 ‘가시나무’는 이런 데에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고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 다시 듣기 설정 (플레이 리스트) 하시거나 통화 신호음(컬러링)으로 해 놓은 신자 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기도하고 단식을 하면서 회개하고 사랑과 자선을 실천하시어 부활을 잘 준비하여 은총의 부활을 맞으시길 희망합니다.



이은진 도미니코 신부 | 하대동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여호 5,9ㄱ-10-12

화 답 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 2 독 서 2코린 5,17-21

복 음 루카 15,1-3,11ㄴ-32

관상: 내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관상을 통해 하느님을 찾는다는 것은 숨어 계신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몰랐던 하느님의 다른 면을 깨닫는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의 체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은총의 선물로 주어진 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 있다. 많은 경우 외부에서 하느님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미 우리 내면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주신 본래의 자아인 ‘참 자아’(the true self)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거짓 자아’(the false self) 혹은 ‘경험적 자아’(the empirical self)가 공존한다. 많은 영성가들은 관상을 거짓 자아에서 벗어나 참된 자아를 찾는 체험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가령 토마스 머튼은 자신의 저서 『새로운 사람』(The New Man)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관상의 체험은 우리 자신 안에서 하느님의 삶과 현존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은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초월적 원천에 대한 체험입니다. 관상은 자신의 가장 은밀한 자아의 바로 그 중심에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신비입니다. 그분의 현존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올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다음 우리의 참된 자아를 찾게 되는) 흥해의 갈라짐을 통해 신비스럽게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관상은 피상적이고 외적인 ‘나’가 사실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고, 관찰과 반성의 범주를 넘는, 설명할 수 없는, 알려지지 않은 ‘나’, ‘참된 자아’를 자각하는 것이라고 머튼은 강조하였다.

이러한 참된 자아를 찾는 관상의 여정은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중심적인 오늘날 우리 시대에 관상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참된 자아를 회복한 이는 자신의 이기적인 자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자신을 오히려 잃어버림으로써 내 안에 있는 하느님께서 주신 본래의 자아를 회복한 이들이다. 그래서 더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자신만을 사랑하며 사는 이들이 아니라 자신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게 된다. 모든 재물이나 권력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임을 알기에 이에 대해서도 자유롭다. 하느님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나누며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자신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은 자신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로 관상의 길에서 자아와 세상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관상을 통해 자신 안에서 하느님의 깊은 신비를 체험할 때, 우리는 이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각각의 이웃은 하느님의 관점에서 모두가 고유한 존재들이며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들이 아니며 동시에 서로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모든 이들은 맞물려진 관계의 네트워크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두는 사랑의 숨겨진 근원이신 하느님 안에서 자신의 참모습과 고유함을 발견하게 된다. 서로의 다양성 안에서 각자가 사랑으로 더 깊이 연대할 때 사랑이신 하느님과 더 충만한 관계를 맺게 된다. 결국, 우리가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하느님 안에서 다른 모든 이가 같이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이 ‘상호 의존’이라는 감각과 우리가 그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상호 책임’과 ‘상호 연대’라는 새로운 감각을 체험하게 된다. 따라서 참된 관상은 사회 정의와 염려에 대한 감각을 중단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책임감’이다.

따라서 사랑의 열매가 없는 관상은 울리는 징에 불과하다. 그리고 진정으로 관상의 깊은 체험을 한 이가 사랑과 자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그릇된 관상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더 깊이 하느님을 체험할수록, 더 깊이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랑은 경계를 넘어간다. 나와 다른 타인뿐만 아니라 자연과 피조물들로 이어지게 된다. 보편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 하느님의 본성이듯이 관상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한 이들도 그렇게 사랑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들, 사랑이 되어가는(becoming love) 이들이다. 『새 명상의 씨』에 나오는 머튼의 다음 말은 관상의 상태를 참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동의하고 기꺼이 그분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나는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간직합니다. 이제 내 뜻은 그분의 사랑과 같고 사랑이신 그분이 되는 길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그분의 기쁨을 내 영혼에 받아들입니다.” 참된 자아를 찾은 이는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어 그분의 사랑과 기쁨을 세상에 나누는 사람이다.

함께 걷는 여정인 시노달리타스 이해하기 ④

마산교구 시노달리타스 위원회

Q. 시노드의 주제인 친교, 참여, 사명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우리가 함께 나누는 친교는 삼위일체의 사랑과 일치에 깊은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와 화해시키고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친교의 바탕 위에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입니다.

•**참여**는 하느님 백성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신앙 감각(Sensus Fidei)**을 통하여 서로를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근거를 둡니다. '시노드정신 안에서 **공동체 전체**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다양성 안에서 하느님의 뜻에 더 부합하는 사목적 결정들을 내리고자 함께 **기도하고, 경청하며, 분석하고, 대화하며, 식별하고, 조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교회의 삶과 사명안에서의 시노달리타스 67-68항 참조)

•교회는 복음화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결코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온 인류 가족 한가운데서 **하느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화의 여정이 시노달리타스이고, 시노달리타스가 복음을 더욱 잘 증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Q. '신앙 감각'은 무엇인가요?

A. '신앙 감각'이란 복음의 진리와 관련해 성령께서 하느님 백성 모두에게 주신 본능적인 능력입니다. 사람이 다섯 가지 감각(시각, 촉각, 후각, 청각, 미각)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듯이 하느님 백성인 교회는 '신앙 감각'을 통해 하느님을 인식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며 성령의 뜻을 식별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교회헌장 12항」을 통해 '신앙 감각'을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가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시노달리타스의 의사결정은 하느님 백성이 지닌 '신앙 감각'을 통해 신학적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함께 걷는 교회를 참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느님 백성 전체가 지닌 '신앙 감각'의 올바른 표현을 이끌어 주는 교회의 다양한 사목적·예언자적·교육적 지표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 신자들의 '신앙 감각'이 지닌 친교의 원리를 토대로 교회는 끊임없는 쇄신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 공동질문

내가 속한 공동체와 친교를 나누고 복음화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나는 어떤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정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랑의 형태 가운데 하나”

그리스도의 성혈 흡수 수녀회

1997년 외환위기 후, 20여 년을 보낸 우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에 생각지 못한 불안과 어려움을 막연히 겪어야만 했다. 2년 넘게 코로나 상황을 지내며 격변의 세상 흐름 속에 엄청난 변화를 우리는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존재감은 전에 없이 커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다양한 분야의 긍정 평가가 쏟아지는 세계적인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쏟아지고 얻어진 결과에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이 꿈인지 사실인지 받아들이기 벅하다. 다양한 분야의 우리나라 산업과 문화, 전통이 세계적으로 영향 미치는 결과가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다. 국민 모두가 함께 이뤄내고, 극복한 결과라는 것이기에 의미가 더욱 크다. 이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집단 면역이 생겨 평범한 우리 일상으로 되돌아가길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난데없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은 세계적인 바이러스 감염극복의 사투에서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구체적인 불안감과 분노,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전 세계인들이 무참한 전쟁으로 원치 않는 희생이 치러지는 비참하고 당혹한 참상을 보며 원망하고, 규탄하고, 아파한다. 무고한 아이들과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과 공포를 함께 느끼며,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정치지도자의 무모한 결정에 분노한다. 과거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우크라이나를 빼앗고 옛 제국의 영광을 재건하겠다는 러시아 푸틴의 전쟁 강행, 그 사이 패권을 잡기 위한 강대국의 야욕을 규탄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를 향해있고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이 더해진다.

정치지도자가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지도자가 갖는 소신과 지향이 자국 뿐 아니라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 전쟁을 통해 절실히 확인한다. 내외적으로 복잡잡한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를 이끌 대통령을 뽑았다. 지도자의 정치적 노선과 국정운영의 가치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선거였기에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자들 중에 누가 더 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주권을 행사했다. 이성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돈벌이가 된 대중 매체는 선거를 아주 저급하게 만들었고, 진영 간 서로에 대한 비방과 비난으로 뒤덮여 혼란과 분열 가운데 선거가 치러졌다. 전에 경험 못한 상황이라 서로서로 고개를 돌리고, 뭐 이런 선거가 다 있나? 누구를 찍어야 할지 고심했다. 투표로 보여준 국민의 선택 결과는 국민의 반은 새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국민의 반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걱정스러워한다.

우리는 지난 3월 9일, 너무도 근소한 차이로 간신히 새 대통령을 선출했다. 너무도 시끄럽고 복잡하고, 혼란한 대통령선거였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우리나라 정치의 쇄신과 변화를 향한 도전이 되고, 국민통합으로 이끄는 과정으로 여기며 한국의 모든 (정치)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정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한 사랑의 탁월한 형태 가운데 하나”(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205항) 임을 생각하고, 정치적 소명을 받은 이로써 그 소명에 맞갖은 수행을 해 나가길 바라고, 희망한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한층 새롭고 정의롭게, 행복하고 이롭게 만드는 데 힘쓰도록 필요한 은총을 예수님께 청하며 기도한다.

내가 힘든 그날에는 항상 당신을 부릅니다

김용철 스테파노 시인/ 가톨릭문인회

어느 날, 요셉 형제가 어머니 사는 동네 어귀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생활하는 형제가 있다고 하여 함께 갔던 그날은 잔 비가 뿌리고 하늘은 우울하였다. 제자리가 없는 작은 서랍 속 같은 방안에는 찌든 약 냄새와 알 수 없는 불안함이 가득하여 쉬이 들어설 수가 없었다. 삐죽삐죽 거리다 마주한 한 아이의 선명한 눈에는 먹구름 가득 머금은 하늘이 들어가 있었다. 쏟아질 것만 같은 하늘은 아이의 두 눈에서 그네를 타고 아이는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우리의 눈치를 자꾸만 살피면서 아버지를 흔들며 대고 있었다.

“울지...마...”

“울지 마세요, 아빠!”

“아빠가 울면, 소망이도 울고 싶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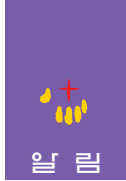
소망이는 비록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지만, 커다란 눈망울과 해맑은 웃음이 가득한 아이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 아빠가 교통사고로 다치기 전까지는. 아빠가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고 술로 아픔을 적실 때, 소망이가 세 살 되던 어느 날 엄마는 엄마의 나라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아직 배냇짓도 다 지워지기 전에 소망이는 아빠 곁에 남 겨졌고, 아빠는 그동안 패지를 모으며 소망이와 살아오다 그만 몸쓸 병에 걸리고 말았다.

한숨조차 마음껏 토할 수 없는 방 안. 고통스러워하는 아빠의 모습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보던 아이는 다섯 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대범한 행동으로 “우리 아빠 귀엽죠?”라며 깊은 병의 고통 때문에 불쑥 내민 혀를 감추듯 밀어 넣는다. 그 혀는 아이가 막은 손의 공간 사이로 뚫고 나와 피었다 지며 작은 요술봉 속의 꽃이 된다. 힘겨운 듯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생의 해감들이 입 주위로 흐르면 아이는 얼른 마른 수건을 가져와 닦아댄다. 자꾸만 울지 말라고 재촉하는 아이의 잔 투정에 단맛을 다시듯 입가에 작은 미소로 주름 새기는 아빠. 아이는 작은 손으로 아빠의 이마를 짚어보며 자꾸만 눈을 마주치려고 하고 아빠는 힘겨운 듯 도리질하며 외면한다. 아이가 얼른 앓은뱅이 냉장고 속에 두 손을 집어넣어 한참을 있다 아빠의 이마로 향한다. “아빠, 정신 차려”라며 차가워진 손을 아빠 이마에 올려놓고 다급한 눈동자로 살피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보면서 아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빠의 상태만 어루만진다. 눈살은 눈빛을 찾아 헤맨다.

그리고 먹구름이 온 방 안을 적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가슴을 긋는다. 아이의 두 눈에 천둥이 쏟아진다. 우리는 가슴을 긋는다. 하늘이 마음껏 울어댄다. 별은 구름에 가렸고 아이는 별을 놓쳤다.

주님! 내가 힘든 그날에는 항상 당신을 부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어린양이 옵니다.





교구 사목 방문

일시: 3월 31일(목)
본당: 칠암동/ 상평동

견진성사

일시: 4월 3일(주일)
장소: 가음동성당
집전: 총대리 최봉원(야고보) 신부

교구/본당

신앙대학

일시: 4월 2일(토)~3일(주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청년로고스 성경통독피정

일시: 4월 2일(토) 13:00~3일(주일) 15:30
장소: 성혈 영성의 집
통독범위: 욥기
대상: 성경에 관심있는 청년, 선착순 12명 마감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 및 180일 이내, 3차 접종 후 즉시), 완치자,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자(피정 당일 아침,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 결과)
참가비: 6만 원/ 신청: 3월 27일(주일)까지
준비물: 성경(주교회의 성서위원회 편찬, 전자기기 어플 제외), 마스크, 텀블러, 세면도구(수건), 필기구, 미사 준비, 시계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채널'@청년부'검색

교구 성경사목부 말씀 봉사자 모집

지역: 마산, 창원, 진주, 거제, 통영
대상: 말씀 봉사가 가능하신 분

신청: 3월 31일(목)까지
문의: 성경사목부 055·249·7026, 010·3567·4810

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나오시거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이영희(마리아)
담당판사: 여인석(베드로) 신부
성명: 김강식(비오)
담당판사: 여인석(베드로) 신부
장소: 교구 법원
일시: 3월 31일(목)까지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위원회/기관/단체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파나) 010·4490·6996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7471·9258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마산장애인복지관 장애인식개선 UCC공모전

접수: 3월 28일(월)~4월 8일(금)까지
참여신청서(QR코드로 접속), 작품(E-메일로 제출)
E-메일: mscrc@hanmail.net(제목: UCC공모전)
대상: 창원시민(아동, 청소년 포함)
공모주제: 장애인식개선 관련 내용(장애인 권리, 편견, 차별, 편의시설 등)
분야: UCC(광고, 브이로그, 스톱모션 등 모든 영상 장르 가능)
작품규격: 시간-3분 이내, 용량-300MB 이하
주관: 마산장애인복지시설을위한연합회
문의: 마산장애인복지관 손경희 070·8798·4807
▶시상내역 및 결과발표 등 자세한 사항은 마산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https://www.mscrc.or.kr/>) 참조

기 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재속 예수성심전교회 회원 모집

일정: 매월 첫 주일 10:00
장소: 부산 장전동 수녀원
대상: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사명에 참여하고 싶은 55세 이하 평신도
문의: 010·2312·2396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4월 3일(주일) 10:00	서울 본부(동소문로)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한국외방선교회	-	-	010·8715·2846/ kmsvocation@daum.net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살레시오회	수시(문의바람)	창원 젊음의 집	심재현 치릴로 신부 010·2042·8353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제주 3박 4일·전국 2박 3일 성지순례
제주 7곳 각 지역 항공출발 35만원
전국 167곳 수원,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전주, 마산 2박 3일·28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굴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절,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주식회사 바른
BARUN
도막형바닥재(관급자재 전문)/ 도장공사
칼라무늬콘크리트/ 벽화 및 디자인
주식회사 바른
(경상남도 전역시공 및 현장설치)
김가수 베드로 문의: 010-5055-0076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우리농
생명공동체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재속 맨발 가르멜회 마산 가르멜산 성모 공동체 회원 모임

일시: 모임-5월 16일(월) 10:00
장소: 진동 가르멜 수도원
대상: 만 55세 미만 신자
문의: 010·8525·1150

재속 프란치스코회 생태영성 특강안내

일시: 개강-4월 9일(토)
매월 둘째주 토요일
장소: 칠암동성당 대성전
대상: 신자 및 비신자
주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영성
주관: 재속 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
문의: 010·5230·1420, 010·5006·6254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성경(말씀)피정, 전례(기도)피정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인성, 신앙)

장소: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대상: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 (코로나 종식 전 5명 이내)
문의: 010·2133·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 최권우 펠릭스 신부,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부친 선종

최권우 신부(군종 토성대성당), 최진우 신부(명례성지 담당)의 부친 최한식(요한 보스코)님께서 3월 21일(월) 선종하여 3월 23일(수) 신안동성당에서 장례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유가족 일동 -



소식

춘계사제총회



춘계사제총회가 3월 15일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실시되었다. 총회는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의 사회로 이루어졌으며, 각국 업무 보고 및 유니오 결산 보고, 토의 사항으로 진행되었다.

가음동본당 죄인의 의탁 Pr. 2,500차 기념 주회



교구 가음동본당(주임: 이창섭 아우구스티노 신부) 죄인의 의탁 Pr.(단장: 박순국 요한)는 3월 15일 2,5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1971년 9월 19일 진주 옥봉동성당에서 이동 평의회 때 마산 치명자의 모후 Co. 직속으로 인준받았다. 현재 박순국 단장 외 8명의 남성 단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날 기념 주회에는 이창섭 신부 및 본당 수도자, 평의회 간부들이 참석하여 단원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전하였다.



마침내 시나이산자락을 떠나다(민수 10,11)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우리가 시나이산에 머문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른세 번째 순례에서 서른일곱 번째 순례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시나이산을 오르거나 시나이산자락에 머물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난 순례에서 모세는 빛나는 얼굴로 시나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어지는 본문(탈출 35-40장)은 모두 성막의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성막의 건립이 온전히 하느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경 저자는 지루하다고 할 만큼 탈출 25-31장(성막 건립에 관한 하느님의 명령과 지시)의 내용을 거의 글자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는 구절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여 드디어 성막이 건립됩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룻날이 되는 날이었습니다(탈출 40,17).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모세는 이 성막 앞에서 거룩하신 하느님께 합당하도록 거룩하게 사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침이 담긴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탈출기의 마지막 사건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룻날에 일어났고, 민수 1,1은 둘째 달 초하룻날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므로, 레 위기는 성막이 세워진 다음 한 달 동안에 일어난 일을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유대인의 삶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규정하는 법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의 종교교육을 위하여 제일 먼저 레위를 읽게 한다고 합니다.

레위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성막에서 이루어질 희생제사(1-7장), 사제 임직식(8장), 성막의 봉헌(9장), 아론의 아들들의 잘못과 죽음(10장), 음식에 관한 규정(11장), 정결레법(12-15장), 대속죄일(16장), 성결법전(17-26장) 등입니다. 레위기의 성결 법전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시간과 장소, 행위에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레위기 19장에는 거룩함에 대한 윤리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유명한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19,18).

레위기 다음에 이어지는 책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라는 제목은 이 책이 인구조사로 시작되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두 차례의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1장과 26장). 민수기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째 부분은 광야로 떠나기 이전에 시나이산에서 보낸 시기를 다루는 본문(1,1-10,10)이고, 둘째 부분은 시나이산에서 모압 평원에 이르는 여정을 다루는 본문(10,11-22,1)이며, 셋째 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다루는 본문(22,2-36,13)입니다.

민수 10,11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마침내 시나이 광야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시나이산자락에서 거의 일 년 정도 체류한 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여정의 출발은 그들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지시에 따라 여정을 시작하고 중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정의 출발을 알리는 나팔 신호는 오직 사제들만이 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구름이 천막에서 오르면 이스라엘은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앉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삶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느님께 드린 채 하느님의 섭리에 의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으면서 하느님의 뜻을 알려주는 표징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일상의 삶 안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목소리가 가장 강합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입니까?